

대한토목학회

49년 전통...오금동 새회관에 입주 회원 8천여명, 土木기술研 설치

李 慶 鎮 <대한토목학회 사무총장>

모든 공학의 母胎로

모든 공학의 모태(母胎)라고 할 수 있는 토목에 관한 이해가 너무 빈약하고 또 잘못 알고 있어 이를 먼저 설명하고 학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토목공학의 기원은 인류역사의 시초와 같이한다. 원시인류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부터 피난처와 안식처를 얻기 위하여 토목기술을 터득하였다. 따라서 토목기술은 그 이론 못지않게 경험을 중하게 여긴다.

인류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운하와 육지의 길을 만들고, 마실 물을 얻으며 농사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였다. 이때의 재료는 흙(土)과 나무(木)로써 토목이란 말이 유래된 것으로, 삼국사기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이후 토목기술은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삶의 터전을 개선하는데 응용되고 있다.

토목공학은 영어로는 'Civil Engineering'이라 하며 이를 직역하면 '시

민공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생명유지와 시민생활의 편리성을 위한 공학이란 뜻이다.

대부분의 다른 공학이 제품을 생산하고 상품화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지만, 토목공학의 제품은 상품이 아니고 시설물이다. 예를 들면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지하철, 교량, 상하수도, 댐 등은 직접 상품화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즉 토목공학은 사회기반시설을 계획, 설계, 건설, 운영, 유지,

관리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풍요로운 미래를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표현할



◇93년 12월4일에 준공한 토목회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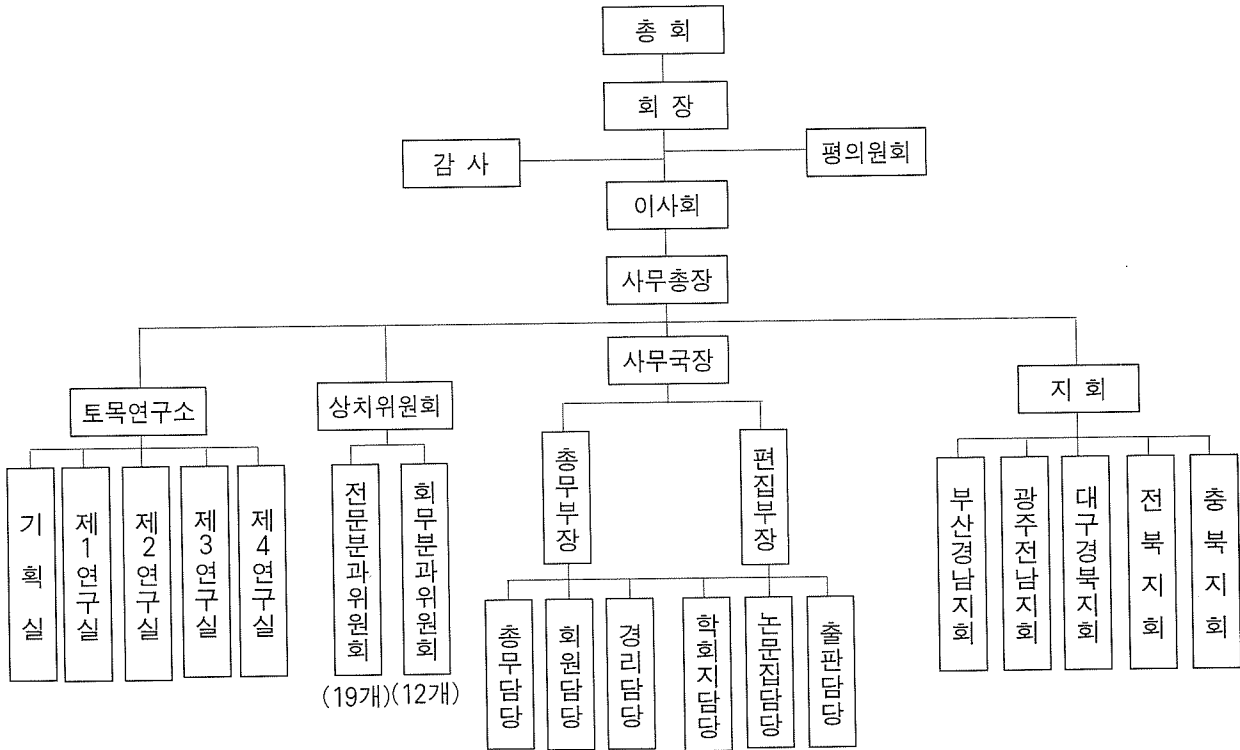
<표1>토목학회 회원현황

('94. 7 현재)

원로회원	참여회원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법인)	계
2인	76인	5,245인	49인	187인	5,559인

*상기숫자는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수이며, 회원 일련번호는 8천번을 넘고 있음.

<표2>토목학회 기구표



수 있다.

51년 부산서 창립총회

학회는 6.25동란중인 1951년 12월 23일 부산시청에서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그 전신(前身)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선토목기술협회'로 활동하던 1945년 이래로는 4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초대회장에 이희준(李熙峻)선생이 역임한 이래 황정규(黃正奎)교수가 현재 27대 회장을 맡고 있다. 학회의 회원수는 <표1>과 같다.

토목학회는 회무집행기관으로 회장단(6인)과 이사진(19인)으로 회의를 월 1회 개최하여 집행사항을 의결하고, 사무국장을 포함한 8인의 직원들이 이를 집행하고 있다. 평의위원회는

연 3회 개최하여 집행업무를 보고받으며 총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지회는 5개가 설립되었으며, 31개의 상치위원회가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들과 함께 학회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또한 '토목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하고 있다. 한시적 기구로는 '토목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토목사를 편찬 발간하기 위해서 자료수집, 문헌탐색, 현장답사 등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학회의 조직 및 기구는 표2와 같다.

작년, 세미나 5회 열어

31개 상치위원회는 1년에 위원회별로 2회 이상의 회의를 하도록 규정되

어 있으며, '93년도의 경우 각종회의 83회를 개최하면서 세미나 5회, 고등기술교육강좌 3회(2백50여명 연수), 해외시찰 1회를 시행하였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PQ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는 3백20여명이 참가하여 심도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고,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정책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는 2일간 4백여명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건설시장 개방 정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학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으로써는 학회 회지와 논문집이 있는데 현재 격월간으로 발간되고 있으나, 95년부터는 회지는 월간으로 발간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현재까지 학회에서 발간한 주요

〈표3〉토목학회에서 발간한 서적

구분	책명	비고
정기간행물	· 대한토목학회지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학술발표논문집	격월간(씩수달) 통권173호 격월간(홀수달) 통권 55호 연간(10월) 통권 18집
단행본	· 각종시방서 29종 · 각종기준 66종 · 조사연구보고서 33종 · 한국토목사(1973) · 토목용어사전(1981) · 토목공학핸드북(1983) · 철근콘크리트설계편람(1992) · 토목시공고등기술강좌(1994)	개정판 준비중
보고서	· 안전진단보고서 223종	

서적은 〈표3〉과 같다.

특히 홍보를 위한 행사로 대학진학 지도교사를 초청하여 토목공학에 대한 소개와 현장시찰을 하였는데 참가한 교사들(충청지역 40여명, 서울강남지역 40여명)의 소감은 토목공학에 관해서 '너무 몰랐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홍보용 달력 1만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5개 지회(표1참조)도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연구하며, 노력하고 있다.

외국학회와의 교류 또한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협력협정을 맺은 나라는 미국(ASCE)이 88년에, 일본(JSCE)은 89년에, 영국(ICE)은 91년에, 중국(CCES)과는 93년에 협정을 체결하고 기술과 자료교환, 세미나 참석 등 교류를 하고 있다. 그 외에 프랑스와 독일과도 협력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대학을 순회하며,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학술발표회는 금년에는 부산 대학에서 개최하며, 3백60여편의 논문

과 특별강연회, 기초강연, 건설자재전시회, 관광 등 2일간, 1천5백여명의 건설기술인들이 참가하는 큰 행사가 될 것이다.

팔당대교 붕괴원인 분석

학회의 연구실적은 책과 논문집, 보고서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목학회는 역사에 비해 부끄럽지 않다고 자부한다. '93년의 경우 68건의 학술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최근에 실시한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팔당대교 붕괴원인 분석', '행

〈표4〉우리나라 대학 및 전문대학 토목공학과 졸업생수 ('93년 현재)

종합대학	57개교	4,390명
전문대학	29개교	3,720명
		계 8,110명

주대교 붕괴원인 분석', '서울시 주요 구조물 안전진단', '지하철공사 붕괴 사고 원인' 등을 실시하여 산학협동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새회관 9백60평 규모

서울 중구 명동에 있던 회관(62평)을 90년 1월에 매각하고 동년 3월에 송파구 오금동에 대지(2백평)를 구입하였다. 회관설계를 현상공모하여 건축사무소 거반에서 제출한 작품을 입선작으로 선정하고, 세부건축설계를 실시하여 신한건영(주)로 낙찰시켜, 92년 5월2일에 착공, 93년 12월4일에 건평 9백60평의 회관건물의 준공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 회관을 마련하기까지는 회장단과 임원진 그리고 전 회원들의 정성 어린 모금과 헌신적인 노력이 응집된 것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건설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산학협동 중개역할

'앞선기술 풍요로운 미래'라는 '94년도 토목학회 포여가 말하듯이 건설 시장개방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우리의 기술을 전파할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산학협동의 중개자로, 또한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대학교육문제와 중견기술자의 자질향상 그리고 신기술 및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도서관 정비와 데이터베이스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관련학회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건설기술인의 화목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도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ST**